소다회 · 망초

소다회의 비누 및 세제용 수요가 94년기준 3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32.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가성소다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사용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다회는 세제의 알카리 완충역할을 하는 알카리제로 완충능력이 크고 경수연화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양화학이 독점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미국 및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 LG화학은 동양화학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애경은 동양화학을 비롯해 두산상사 및 삼성물산으로부터 수입품을 구입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두산상사를 통해 미국산 소다회 및 삼성물산을 통해 솔베이산 소다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태평양은 동양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다회도 가성소다와 마찬가지로 LG화학의 수요감소가 눈에 띠는데 이는 고농축세제 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제용 망초의 수요도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농축세제의 사용증가로 풀이되고 있으며 고농축세제에는 망초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93년 망초 수요는 2만7200톤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으며 94년에는 2만8100톤으로 3.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대 망초 수요기업인 LG화학의 수요가 92년 1만5100톤으로 91년 2만7800톤대비 45.7% 감소하는 등 고농축세제의 생산증가로 월 1500여톤 전후의 망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일제당 등은 일부 소량의 무수망초를 제외하고 세제용 망초 소비가 거의 없으며 애경도 92년을 기점으로 망초 수요가 8500톤으로 91년 1만1000톤대비 22.7% 감소한이후 월 800톤 전후의 망초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망초 총수요는 18만여톤으로 이중 수입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있고 동양화학, 제일물산이 부산물차원에서 생산하는 양이 4만톤미만에 머물고 있다. LG화학은 LG상사를 통해 중국산 망초를 수입하고 있으며 동양화학에서는 미국산 망초를 공급받고 있다.
또 애경은 제일물산에서 조망초를, 신화시켐에서 중국산 무수망초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망초는 세제에 첨가되어 계면활성제의 계면 흡착량을 증가시키고 계면장력을 낮추어주며 오염의 분산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